

상무소각장, 복합문화공간 탈바꿈한다

복지센터·도서관 등 건립 계획

내년 타당성 조사·세부 확정

주민들 “인근 나대지 포함을”

연말 폐쇄를 앞둔 상무소각장 부지에 복합문화커뮤니티타운이 건립될 전망이다. 인근 주민과의 갈등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사실상 활용방안이 마련된 셈이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상무소각장 활용 방안 테스크포스(T/F)위원회 회의 결과 소각장 부지(3만3000㎡)에는 복지문화센터 등 복합문화커뮤니티타운을 건립하기로 했다.

광주김치축제 열리는 19일

“고추장 만들어 보세요”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쌀 소비 촉진과 건강한 식문화 확산을 위해 광주세계김치 축제 기간에 ‘고추장 만들기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체험 행사는 남도음식연구소 이은경 강사가 진행으로 오는 19일 오후 2시와 오후 4시 두차례 열린다. 기죽 단위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1만원이며, 체험 후 직접 담근 고추장 1kg을 가져갈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오는 11일까지 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gri.gwangju.go.kr) 열린마당-교육·견학신청(Ok예약)에서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팀(062-613-5312),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김치아카데미 ‘장 담그기’

17일까지 수강생 모집

광주김치타운 김치아카데미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주부,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리집 장 담그기’ 과정을 운영한다. 장 담그기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65호로 지정된 백정자 씨가 강사를 맡아 첫째 날인 21일에는 현장학습으로 강진된장마을을 방문해 메주 만들기 수업을 진행한다. 둘째 날(22일)에는 태양초로 고추장을 만들고, 메춧가루로 막장도 만들어 본다. 마지막 날(23일)에는 곱게 빻은 메춧가루, 보릿가루, 고춧가루에 찹쌀죽을 섞은 후 소금에 절인 채소와 간장을 넣고 따뜻한 곳에 3일 정도 삭히는 작업을 만든다. 참가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전화(062-672-8447, 8446)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수강료는 실습비와 현장학습비를 포함해 40만원이다. /채희종기자 chae@

로 했다. 문화복지 시설로 복지센터를 비롯해 강당, 세미나실, 건강관리실 등을 짓고 어린이 중심의 도서관과 북세미나, 동화체험 시설 등도 만들 계획이다. 내년엔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3억원)에 들어가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복합문화커뮤니티타운 건립에는 국비와 시비 등 1000억원 가량 들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주민들은 소각장과 인접한 광주 도시공사 소유 나대지(6만6000㎡)도 사업 부지에 포함해 국립도서관과 전통문화정

원, 야외공연장 건립 등을 주장하고 있어 갈등 소지는 남아 있다. 광주시는 도시공사 부지 확보에만 수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시공사 측은 나대지를 활용해 아파트 건립 계획을 추진중이며, 이 가운데 2만여㎡는 주민을 위한 조경과 잔디 공간으로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주민과 생각 차이가 여전하다. 광주시는 앞서 소각장 부지 활용방안을 접근성, 항공기 소음 등 지역 여건과 사회·문화적 특성 고려, 활용으로 인한 경제성 등 3가지 원칙을 세운 바 있다.

시와 시의회, 주민대표, 전문가, 사회단체 등 16명으로 T/F팀을 구성해 지난 4월부터 7차례 회의와 설문조사를 거쳐 활용 방안을 마련했다. 상무소각장은 공사비 743억원이 투입됐으며 착공 5년여만인 2001년 6월부터 가동 중이다. 내구연한은 15년으로 연말 폐쇄되면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남구 양과동에 조성 중인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RDF) 생산시설에서 처리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회의에서 결정한 것인 만큼 사실상 활용방안으로 확정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건강한 백세인생 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현) 산하 효령노인복지타운은 3일 광주시 체력인증센터와 연계해 타운 이용회원 을 대상으로 체력 측정 및 체력관리 상담 행사를 가졌다. <광주복지재단 제공>

광주시, 생활체육 거점 K-스포츠클럽 선정

태권도·배드민턴·유도 3종목

광주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거점 K-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K-스포츠클럽사업은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국가대표 은퇴선수 등 우수 체육인의 지도자 일자리 창출, 학교체육·일반 생활체육동호회·전문체육 간 연계를 강화해 전문 체육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올해 광주시와 함께 부산·남원 등 3곳을 우선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전국 10곳 가량을 선정해 거점 K-스포츠클럽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광주시 체육회, 조선대와 협력해 태권도, 배드민턴, 유도 3종목에 대해 사업에 응모했다. 영주종합체육관, 조선대 체육대학 등에 거점 K-스포츠클럽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 충분해 확보돼 있는 점과 시민체력증

진센터, 스포츠과학센터 등 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우수 프로그램들과 접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3년간 연간 8억원씩 총 24억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박종호 광주시 체육진흥과장은 “최근 언론에 자주 언급되는 K스포츠재단과 명칭이 유사하지만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며 “공모사업 선정으로 생활체육 분야에서는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관련 종목을 양궁, 수영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독감 내달 본격 유행...“예방접종 서둘러야”

65세 이상·영아 무료

광주시는 아직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어르신과 영아는 인플루엔자가 본격 유행(12월 이후)하기 전에 지정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받을 것을 당부했다. 광주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0월31일 기준 만 65세 이상 어르신 14만여명(83.6%)과 출생 6~12개월 미만 영아 5000여명(1차 55.6%, 2차 1.8%)이 무료접종을 마쳤다고 밝혔다. 예방접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1년 이전 출생)은 15일까지, 출생 6~12개월 미만 영아(2015년 10월1일~2016년 6월30일 출생)는 12월31일까지 무료 접종할 수 있다. 영아는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하므로 연말까지 2차 접종을 못한 경우 내

년 1월까지 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므로 백신공급과 예방접종 효과(평균 6개월) 등을 고려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예방접종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의 경우, 중증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아 감염으로 인한 입원 및 사망 위험이 높고, 만 5세 이하 소아의 경우 감염으로 인한 입원율이 매우 높은 연령대로 질병 부담이 크므로 예방접종 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정 의료기관 방문 전에 꼭 관할 보건소와 129(보건복지콜센터),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nip.cdc.go.kr)에서 당일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방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시내버스 단속카메라 효과 보인다

전용차로 준수·불법주차 해소

광주시가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불법주차 단속을 위해 운영중인 시내버스 장착 CCTV 시스템이 시내버스의 정시성 향상과 교통흐름에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가 실시한 교통관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1순환도로 내 시내버스 평균속도는 2013년 21.91km/h에서 2015년 24.42km/h로 2.5km/h가 빨라진 반면, CCTV를 장착한 순환01번과 송정19번이 운행되는 서암대로와 경열로의 경우는 평균 9.5km/h가 빨라져 시내버스 무인단속카메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속카메라 장착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원 4명(순환 01번 2명, 송정98번 2명)은 “시내버스에도 카메라를 장착하고 단속한다는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져

버스전용차로 준수와 불법주차차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운행흐름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2011년 9월 이후 9개(01, 06, 07, 09, 19, 27, 37, 51, 98) 노선에 32대의 무인단속카메라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단속 건수가 2012년 3만7000여건, 2013년 1만7000여건, 2014년 1만7000여건, 2015년 1만6000여건, 2016년 10월말 기준으로 8200여건으로 위반차량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한 단속은 주요 도로변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다”며 “시민 스스로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통질서를 지키는데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내일 무등산 정상 개방...1187번 버스 증편

광주시는 단풍절 무등산 정상이 개방되는 오는 5일 교통혼잡을 줄이고 탐방객 교통편의를 위해 원효사행 1187번 노선 등 시내버스를 증편·운영한다. 이번 개방 구간은 정상 군부대 내 지왕봉과 인왕봉 주변 0.8km로, 누에봉에서 정문을 통과한 후 부대 내 지왕봉과 인왕봉을 관망하고 오는 코스다.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광주시는 개방 행사에 탐방객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보고 무등산국립공원(원효사행) 1187번 노선을 평소 주말보다 9대 증차해 총 17대 운행한다.

원효사 방면으로는 1187번과 1187-1번 등 2개 노선 20대 205회 운행하며, 증심사 방면은 기존대로 8개 노선 106대 1127회 운행한다. 1187번 노선은 광전터미널~광주역~문화전당역~산수오거리를 경유해 무등산국립공원(원효사)까지 157회 운행하며, 1187-1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산수오거리를 경유해 원효사까지 48회 운행한다. 아울러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탐방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광명아파트 맞은편 장원초등학교 운동장을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한다. /채희종기자 chae@

경매에 관한 모든 것!

오천경매

▶비법 배우실 분 /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 등 1200만원

▶투자 하실 분 / 공동 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단, 상담후 본사 결정

대표 최선규
H. 010-3605-5000